

아동의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와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 개인적 및 대인관계 발달간의 관계 분석

천 희 영(고신대 교수)

본 연구는 전국 단위에서 표집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도,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각각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에의 의존도 수준에 따라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나아가 아동의 성별로 휴대전화에의 의존도 수준에 따라 아동의 개인적 및 대인관계의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직접적인 연구 목적을 두었다. 그럼으로써 아동의 휴대전화에의 과도한 의존 예방 교육과 치료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에 의한 'KCYP2010 초4패널 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 패널 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아동 1609명이었다. 휴대전화 의존도는 이시형 등(2002)의 문항들로서 측정되고 의존도 수준은 양극단 30% 및 그 중간의 세 수준으로 나뉘었다.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9가지의 목적별 사용 수준으로써, 개인적 발달은 자아탄력성 척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행동통제와 학업시간 관리능력 하위차원 문항들로서 측정되었다. 대인관계의 발달은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또래관계와 교사관계 하위척도로서 측정되었다. 통계적 분석을 위해 기술통계치를 산출하고 평균의 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 의존도의 문항 평균점수는 남아가 평균 1.62($SD=.59$), 여아가 평균 1.63($SD=.55$)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t=-.08, p=.94$). 아동의 성에 따른 휴대전화의 전체 사용 수준은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t=-2.21, p<.01$),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은 5개 사용 목적 영역에서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오락·게임을 목적으로 한 경우만 남아의 사용 수준이 높고 나머지 목적들에서는 여아의 사용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성별 휴대전화 의존도 수준에 따른 사용 목적별 사용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남아의 경우 9가지의 사용 목적에서, 여아의 경우 가족과의 문자메세지를 제외한 8가지의 사용 목적 각각에서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고, 또래관계와 교사관계가 긍정이지 않다고 볼 수 있었다.

휴대전화의 사용 수준이 '가끔 사용하는' 수준에 근접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연구문제 전반에서 청소년 대상의 연구결과들과 다른 연구결과들을 발견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 교육 및 예방 노력에서 아동의 성은 물론 청소년과의 발달적 차이를 고려한 학령기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나아가 휴대전화 의존도와 아동 발달의 관계를 통해 초등 4학년과 같은 이른 시기에서부터 관심과 지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었다.